野 텃밭서 與 이정현 3선 노려 … 야·무소속 11명 도전

정당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국민의당	국민의당	국민의당	민주당	무소속
이름	**이정현**	**김광진**	**고재경**	**김선일**	**노관규**	**서갑원**	**구희승**	**박상욱**	**손훈모**	**정표수**	**최용준**	**정오균**
나이	57	34	47	52	55	53	53	51	46	60	54	39
약력	·현) 국회의원 ·전) 대통령비서실 정무수석	·현) 국회의원 ·현) 순천대총동창회 부회장	·현) 더민주 정책위 부의장 ·전) 국회의원 보좌관	·현) 더민주 부대변인 ·현) 순천대 겸임교수	·현) 변호사 ·전) 순천시장	·전) 17·18대국회의원 ·전) 노무현대통령 청와대 비서관	·전) 산자부 서기관 ·전) 광주지법 판사	·전)전남교육희망연대 집행위원장 ·전)민주노총 전남본부 초대 본부장	·현) 당 정치혁신 특별위 상임위원 ·현) 변호사	·현) 순천대 초빙교수 ·전) 예비역 공군소장	·현) 당 순천·곡성 지역위원장 ·전) JC 중앙회장	·전) 순천대 총학생회장 ·전)국회의원 수석 보좌관

■누가 뛰나

새누리당 이정현(57) 의원의 지역구인 ‘순천·곡성’이 선거구 재획정으로 곡성이 떨어져 나가면서 ‘순천’ 단일 선거구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 의원이 고향인 곡성을 포기하고 순천 출마를 결정하면서 이 선거구는 전국적인 관심을 끄는 지역구 중 하나가 됐다. 야당 텃밭에서 여당 의원이 3선에 도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선일(52) 순천대 겸임교수, 노관규(55) 전 순천시장, 고재경(47) 더민주 정책위원회 부의장, 서갑원(53) 전 국회의원, 김광진(34) 국회의원 등이 출마했다.

또 국민의당에선 박상욱(51) 전 전남교육희망연대 집행위원장, 손훈모(46) 변호사, 구희승(53) 변호사, 정표수(60) 예비역 공군소장 등이 출사표를 던졌다.

이와 함께 원외 민주당에서는 최용준(54) 지역위원장, 무소속으로 정오균(39) 전 순천대 총학생회장이 각각 예비후보로 등록, 표밭을 누비고 있다.

◇**새누리당**=박근혜 대통령의 복심으로 통하는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7월 보궐선거에서 승리 후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주민들과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지역구 바닥을 다져왔다. 그는 각 마을회관을 순회하며 주민과 하룻밤을 함께 자는 행보를 계속하는 한편 매주 토요일에는 조례호수공원 잔디광장에서 ‘이정현 함께하는 광장 토크’를 진행했다. 이와 함께 예산 철에는 여당 예결위원을 모두 순천으로 불러 호남권 예산정책협의회를 갖는 등 예산 확보에도 심혈을 기울였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했다. 이 같은 노력에 대한 순천 시민의 평가가 주목된다.

◇**더민주**=순천은 전남 동부권에서 가장 더민주 세력이 강한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는 노 전 시장과 김 의원, 서 전 의원 등 전·현직 국회의원과 전직 시장이 더민주 소속이어서 경선전이 본선 못지 않게 ‘빅이벤트’가 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또 매산고 선·후배인 노 전시장과 서 전 의원 간 경선 재대결도 흥미를 배가시키고 있다. 지난 2014년 7월 보궐선거 경선에서는 서 전 의원이 이겼다. 후보가 많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1차 컷오프 결과와 결선투표제가 경선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시장은 순천만정원박람회를 기획, 유치한 주인공이다. 오랫동안 준비해 조직력이 좋지만 시장을 중도사퇴한 데 대한 일부 부정적 여론이 걸림돌이다. 그는 “지난 보궐선거에서 무너진 순천의 자존심을 세우고 온 시민과 함께 이룬 순천만의 기적을 완성하고 싶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그는 요즘 초심으로 돌아가 ‘그래도 노관규’라는 깃발을 꽂은 배낭을 메고 순천의 구석구석을 훑으며 지역구 바닥을 다지고 있다.

대표적인 친노(친노무현)계 인사인 서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14일부터 최근까지 70여일간 조은프라자 4거리에서 석고대죄를 했다. 야권 분열과 함께 새누리당에게 지역구를 뺏긴 데 대한 사죄하는 마음을 담았다. 처음에 반신반의했던 시민이 그의 진정성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인다고 한다. 그는 “순천의 ‘맏이 정치인’으로서 풍부한 경험과 인맥으로 순천을 더욱 키울 맏이가 되겠다”며 출마했다.

현역 비례대표 의원인 김광진 후보는 신선감과 젊은 패기가 최대 강점이다. 지난 23일 국회에서 5시간 이상의 필리버스터를 하며 인지도를 대폭 높여 노 전 시장, 서 전 의원과의 인지도 격차를 좁혔기 때문에 결선투표까지만 가면 승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 그는 24시간 7일 내내 머물 수 있도록 2개의 핵심시설을 유치하고, 4개의 거점별 숙박시설과 7개의 권역별 야간경관 포인트를 구축하는 ‘247 관광프로젝트’를 내놨다.

김선일 겸임교수와 고재경 부의장도 패기를 앞세워 인지도를 높여가며 이변을 노리고 있다. 이들은 특히 1차 컷오프가 끝나고 나면 경선구도가 바뀔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한국유기질비료산업협동조합 9대 이사장, 전국농어민위원회 부위원장, 농업회사법인 에코팜㈜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김 교수는 “신인의 순수함과 더불어 안정감까지 갖춰 생활정치를 실천할 사람이 필요하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강기정 의원의 보좌관으로 활동하다가 지난 2014년 보궐선거에서 경선전에 뛰어든 경험이 있는 고 부의장은 “막말폭탄과 딴소리로 순천시민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 이정현 의원을 반드시 심판하고 순천시민의 자존심을 회복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국민의당**=오랫동안 정치활동을 해온 구 변호사의 인지도가 높지만 경선 방식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 경선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정치신인을 위해 숙의배심원제가 도입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구 변호사는 “사시와 행시 합격 후 경제부처 15년, 판사 6년, 국제 통상 업무 추진 등 그동안 갈고 닦은 역량이 지역을 위해서 쓰여졌으면 좋겠다”며 출마했다. 그는 “극단적인 경제 양극화, 청년 실업, 가계부채 등 사회 및 경제 위기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국민을 절망의 늪에 빠뜨려 허우적대게 하는 정치를 끝내고 새로운 정치, 바른 정치로 지역의 삐뚤어진 정치행태를 바로 잡고자 한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시대정신에 맞는 혁신적인 후보, 순천의 정체성에 부합하는 깨끗하고 정직한 후보만이 박근혜 대통령의 아바타격인 이정현 의원을 이길 수 있다”며 “이번 국회의원 선거가 그저 동네 국회의원 한 사람을 뽑는 선거가 아니기 때문에 본선에서 반드시 이길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이 후보가 돼야한다”고 밝혔다. 그는 2012년 민주통합당대선캠프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했으며 삶의출판협동조합 이사장을 맡고 있다.

정 전 소장은 공군 복무 당시 최우수 조종사인 ‘탑건(Top Gun)’으로 뽑힌바 있는 안보전문가다. 그는 “새누리당 정권 8년 동안 정권의 무능, 독선과 불통은 국민에게서 희망을 앗아가 버렸고 서민생활을 피폐하게 만들었다”며 “정치개혁의 선봉에 서서 서민경제를 되살리고 정권교체를 이루기 위해 국민의당 창당 발기인으로 참여했다”고 말했다.

박상욱 예비후보는 “시민의 힘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폭주를 저지하고, 패배에 익숙해진 야권에 새로운 생명력을 불어넣겠다”며 출마를 선언했다. 그는 평교사 출신으로 2005년 순천 하이스코 비정규직 투쟁과정에서 파면, 투옥되기도 했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순천=김은종기자 ejkim@kwangju.co.kr

■전남지역 선거구

더민주 김광진·고재경·김선일·노관규·서갑원·출마

국민의당 구희승·박상욱·손훈모·정표수 도전장

새누리 이정현, 민주당 최용준, 무소속 정오균 등록

고향 내준 이정현 득표력·야 후보단일화 변수

■관전 포인트

이번 총선의 가장 큰 관심거리는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의 지역구 재선, 다시 말해 비례대표를 포함한 3선 성공 여부다.

이번 총선에서는 이 의원과 더민주, 국민의당 후보 간 3자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이 크다. 순천 정치권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이 의원이 30~35%, 더민주와 국민의당 후보가 60% 내외를 나눠가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단 이 구도로만 본다면 두 야당이 치열하게 접전을 벌일 경우 이 의원의 3선이 유망한 상황이다. 여야 일대일 대결이라면 모르지만 야권의 표가 나눠지면 그동안 지역구 관리에 최선을 다해온 이 의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커다란 변수가 등장했다. 선거구 재획정에 따라 순천·곡성 지역구에서 곡성이 분리된 것이다. 그런데 곡성은 이 의원의 고향이다. 지난 2014년 7·30 순천·곡성 보궐선거 당시 이 의원은 6만815표를 얻어 4만9611표를 얻는데 그친 서갑원 후보를 1만1200여표 차로 꺾었다. 이 의원은 순천에서 3500표 차, 곡성에서 7700여표 차로 서 후보를 이겼다. 곡성에서는 이 의원에게 몰표가 나왔다. 따라서 곡성의 분리로 이 의원은 순식간에 많게는 1만여표를 잃게 됐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이 같은 분석을 기초로 이번 순천 총선 승패의 열쇠는 ‘야당의 분열에 따른 야당 측 손실과, 곡성 분리에 따른 이 의원의 손실 중 어느 쪽이 크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단, 선거과정에서 이 의원의 당선을 저지하기 위한 야권 후보 간 단일화 성사 여부가 변수가 될 수는 있다. /박지경기자 jkpark@

다선 다수 배출 … 소선거구 첫 여당 당선

■선거구 특징

순천에서도 과거에는 다선 의원이 다수 배출된 바 있다. 허경만 전 의원이 5선, 윤형남·유경현·조순승 전 의원이 3선에 각각 성공했다. 특히 중대선거구제로 실시된 10대부터 12대 총선까지 순천·구례·승주 선거구에서는 허경만, 유경현 전 의원이 여야 소속으로 동시에 3선을 했다.

그리고 소선거구제가 된 1988년 13대 총선부터는 야당의 독무대였다. 13대 총선에서는 순천과 구례·승주로 나뉘어 평민당 소속의 허경만, 조순승 전 의원이 각각 당선됐다. 또 14대 총선에서는 두 전 의원이 당만 민주당 소속으로 바뀐 채 당선됐다. 1996년 15대 총선에서는 순천에서 김경재, 승주 일원에서 조순승 전 의원이 새정치국민회의 소속으로 각각 당선됐다.

이어 순천시로 통합, 하나의 선거구가 된 2000년 16대 총선에서는 김경재 전 의원이 새천년민주당 후보로 당선됐고 17대(2004년)와 18대(2008년) 총선에서는 열린우리당 서갑원 전 의원이 당선됐다.

하지만, 서 전 의원이 중도 하차한 후 치러진 2011년 4월27일 보궐선거에서는 민주노동당 김선동 후보가 야권 단일후보로 나서 승리했다. 이어 2012년 치러진 19대 총선(순천·곡성)에서도 김 전 의원이 통합진보당 후보로 나서 제1야당 후보를 제치고 재선에 성공하는 이변을 나았다.

순천시민은 2년 후 또다시 사고(?)를 쳤다. 통진당 해산으로 벌어진 2014년 7·30 재보선에서 소선거구제 도입 이후 처음으로 여당(보수정당) 후보인 이정현 의원을 뽑은 것이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